

# 소통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의 형식

—한강의 『희랍어 시간』을 중심으로\*

이 하 은\*\*

## 요약

이 논문은 『희랍어 시간』에 나타난 소통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의 형식에 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강의 소설은 섬세한 언어 표현을 통해 언어나 글 쓰기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사유해 나간다. 이러한 특징에 비해 한강 소설은 주로 『채식주의자』 등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의 경향이나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역사적 재현과 애도의 측면이 연구되었다. 이 논문은 『희랍어 시간』을 통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강 소설이 지닌 고유의 시학을 발견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희랍어 시간』은 한강 소설 중 언어와 소통의 문제를 전면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유한다. 동시에 『희랍어 시간』은 언어가 기호의 영역을 넘어 윤리적 차원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희랍어 시간』은 한강 소설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 의식을 언어와 소통의 문제로 풀어낸다는 특이성이 있다. 따라서 『희랍어 시간』에 나타난 언어 형식을 고찰하는 작업은 한강 소설 시학의 특징과 그것의 가치를 규명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희랍어 시간』에서 언어는 인간 존재의 거주 방식을 상징한다. 일찍이 하이데거는 인간이 언어로 거주하는 존재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주목할 때, 『희랍어 시간』의 작중인물들이 겪는 소통에의 장애는 그들이 삶에 적용한 형식의 불완전함과 관련이 있다. 여자는 의미의 우글거림 속에 살아가나 그것을 체계화 할 언어 형식이 부재한다. 또한 남자는 의미를 논리적으로 구축할 수 있지만 그 형식은 존재가 거주할 수 없는 공허한 대상이다. 그들은 가능성의 형식을 되찾기 위해 낯선 언어,

\* 이 논문은 2022년도 한국리더리학회 9월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즉 희랍어의 세계에 몰입한다. 희랍어는 정교한 체계를 갖췄으면서도 의미의 차이 회를 용인하는 독특한 언어이다. 그렇지만 희랍어는 두 사람의 삶에 공통된 의미를 되돌려 줄 언어의 시원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희랍어는 그들의 삶과 유리된 언어에 속하기 때문이다.

『희랍어 시간』에서 언어는 불완전한 형식을 지닌 작중인물들이 접촉하며 충돌할 때, 기능성의 형식으로 전환된다. 이때 여자와 남자는 분할된 소통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는 단수성을 이룬다. 『희랍어 시간』에서 그것은 연인의 공동체로 표상된다. 연인의 형상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차이를 용인하며 구축된 기능성의 형식이다. 그것은 과거와 달리 그들의 삶에 사랑과 자유, 신뢰와 연대 등의 인륜적 정신을 생성한다. 이때 언어의 문제는 기호의 차원을 초월하여 인간 존재와 윤리의 영역으로 이행한다. 다시 말해, 『희랍어 시간』에서 상실된 언어는 공동체를 지탱할 윤리가 두 작중인물의 삶에 정박할 때 도래한다. 이것이 『희랍어 시간』이 언어와 형식을 통해 형상하고자 한 윤리의 실천이다.

주제어: 『희랍어 시간』, 언어의 불완전성, 기능성의 형식, 시원의 언어, 형식, 한강, 인륜적 정신, 연인의 공동체

## 목차

1. 서론
2. 파편화된 언어와 의미의 무화
3. 시원적 언어에의 동경과 실패한 형식
4. 형식의 충돌과 언어의 회복
5. 결론

## 1. 서론

“이채로운 말걸을 파동처럼 빚어내는 작가”<sup>1)</sup>로 평가받듯이 한강의 소설은 신체를 파고드는 고통스러운 언어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 한강의

1) 우찬제, 「진실의 숨결과 서사의 파동」, 『문학과사회』 23, 2010 봄호, 349면.

소설은 인물의 내면 깊이 새겨진 상흔들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뒤흔들고 파괴하는 사건들을 재현한다. 삶 이면에 잔존하는 고통을 서사화하면서 한강 소설은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을 집요히 탐구하는 고유한 서사세계를 구축해낸다. “대답하는 소설보다 질문하는 소설”<sup>2)</sup>을 추구하는 작가의식과 유사하게 한강의 서사공간에는 삶과 죽음을 사유하는 작중인물의 정신들이 포진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작중인물들의 경험 세계와 긴밀히 결합되었기 때문에 피상적인 사변에 머물지 않는다. 그렇게 경험과 관념, 현실과 허구를 이분법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혼재된 정신 속에서 한강 소설이 지닌 독특한 형이상학이 구축된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작중인물의 물질적 경험이 비물질적 사유로 이행하는 과정과 관념들이 구축하고자 한 공통의미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설이 의미를 언어로 표현하는 장르라는 면에서 소설의 의미구성체계는 언어 형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본고는 언어를 전면화한 『희랍어 시간』을 통해 한강 소설에 작동하는 의미구성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강 소설은 학술적 연구와 현장비평 두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것은 대체로 두 개의 경향으로 나뉜다. 먼저 한강의 소설에는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의 대립 구도가 빈번히 나타난다. 『채식주의자』 이후의 소설에서는 남성 인물들에게서도 병리적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한강 소설에서 여성 인물은 대개 가부장적인 질서에 의해 우울증이나 분열증을 앓는 희생자로 표상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한강 소설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연구된 바가 크다. 특히 「내 여자의 열매」나 『채식주의자』에서 두드러졌듯이 여성을 ‘식물성’의 범주와 결합하여 생태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들<sup>3)</sup>이 많다. 다음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2) 강계숙·한강, 「작가 인터뷰-삶의 숨과 죽음의 숨 사이에서」, 『문학과사회』 2010. 봄호, 337면.

3) 김재경, 「소설에 나타난 음식과 권력의 문화기호학-김이태 「식성」과 한강 「채식주의자」를 중

체제로 삼은 『소년이 온다』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소년이 온다』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재현하면서 촉발된 윤리적 또는 정치적 의미에 중점을 둔다.<sup>4)</sup> 이들은 증언할 수 없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한 오월 문학에 『소년이 온다』를 포괄함으로써 오월 문학의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그것이 지닌 문학적 가치를 강조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한강의 몇몇 소설을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소설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특정 주제 의식이나 연구 방법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sup>5)</sup>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하기 위해 한강의 소설 주제들을 ‘인간’이라는 포괄적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이탤릭체 사용, 시점 변화 등 서사적 전략을 분석하려는 연구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기존에 한강 소설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희랍어 시간』과 『바람이 분다, 가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sup>6)</sup> 이 두 작품은 타자와의 소통 가능성을 회복하며 삶을 추구하려는 작중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한강 소설의 변곡점을 형성한다. 이와 더불어 그들은 소통 매체로서 언어나 글쓰기의 문제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한강 소설의 토대에 작용하는 문학관을

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2, 2009; 신수정,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체식’의 의미», 『문학과학경』, 9권 2호, 2010; 함정임, 「2000년대 한국 소설의 생태학적 고찰」, 『한국문예창작』 9권 1호, 2010; 이찬규·이은지, 「한강의 작품 속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연구-「체식주의자」를 바탕으로」, 『인문과학』 46,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4) 조연정, 「광주를 현재화하는 일」, 『대중서사연구』 20권 3호, 2014; 강소희, 「오월을 호명하는 문학의 윤리」, 『현대문학이론연구』 62, 2015; 심영의, 「5·18 소설에서 항쟁 주체의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15권 1호, 전남대 5·18연구소, 2015; 이숙, 「예술가의 사회적 책무:폭력의 기억과 기억의 본질」, 『현대문학이론연구』 60, 2015.

5) 장수익, 「감각과 분열증—한강 소설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58, 2019, 395면.

박진, 「한강 소설에 나타난 주체화의 양상과 타자 윤리 문제」, 『한국언어문화』 59집, 2016, 289면.

6) 박진, 위의 논문, 290면.

박진, 「표상 불가능한 타자의 현전과 비표상적 글쓰기의 가능성」, 『현대소설연구』 71, 2018, 124-125면.

탐구할 중요한 장소가 된다.

그 중 『바람이 분다, 가라』는 여성 주제나 젠더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함께 거론되어 일정 정도 연구 결과가 축적된 데에 비해 『희랍어 시간』은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이는 『희랍어 시간』이 철학과 문학의 경계가 불분명한 글쓰기로 언어, 타자, 소통 등 다양한 주제들을 동시에 전개하며 여러 겹으로 읽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한강의 소설에는 언어의 한계를 고심한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희랍어 시간』은 언어의 근원적 한계를 “언어로 뚫고 나아가”기 위한 고민들을 전면화한 장편소설에 속한다. 그런데 『희랍어 시간』은 글쓰기나 언어에 대한 성찰이 전면화된 소설로 거론된 데에 비해 그것이 구현하고자 한 언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희랍어 시간』<sup>8)</sup>에 나타난 언어 문제에 중점을 두고 그것이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한강 소설 연구를 보완하는 동시에 『희랍어 시간』의 토대를 이루는 언어 형식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언어는 형식과 의미가 불일치하는 근원적 속성에 따라 끝없이 차이를 생성하는 기호이다. 이로 인해 인간은 타인과 온전히 소통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에 좌절한다. 이는 차연이 의미를 공유할 공동의 언어 형식을 해체하고 만다는 부정성에 몰두할 때 두드러진다. 『희랍어 시간』에서 그것은 타인과 소통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독을 마주한 작중인물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언어는 형식과 의미의 취약한 결합이라는 동일한 논리로부터 의미의 창조적 생산이라는 정반대의 효과를 얻기도 한다. 이때 언어는 차이를 용인하면서도 공통된 의미 기반을 갖춘 “가능성의 형식”<sup>9)</sup>으

7) 강지, 「작가 인터뷰-고통으로 '빛의 지문'을 찍는 작가」, 『작가세계』 2011 봄호, 49-51면.

8) 본고는 2018년도에 문학동네에서 발간한 『희랍어 시간』을 판본으로 삼는다.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페이지 면수를 괄호에 기입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9) 가능성의 형식은 존재론적 발생의 세 번째 요소이다. 가능성의 형식이 구성될 때, 개체들과 인칭들은 가능성을 효과화하는, 조건지어진 것의 실존에 필수적인 관계들을 규정하는 물질적 심급의 역할을 한다.(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옮김, 한길사, 2017, 219-220면.)

로 기능한다. 가능성의 형식은 주관적 의미에 객관성을 결합함으로써 의미를 명계의 차원으로 이행시킨다. 이러한 형식이 삶에 현실화될 때, 상이한 세계 내부에 의미의 공통 기반이 안정적으로 정착한다.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 가능성의 형식이 윤리적 가치에 토대를 두어 구축되기 때문이다. 『희랍어 시간』의 두 인물이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할 때 서로를 수용하고 이해할 새로운 소통 방식이 생성되는데, 그것이 앞서 논한 가능성의 형식에 해당한다.

본고가 『희랍어 시간』에서 고찰하려는 바가 바로 언어의 근원적 한계를 긍정하며 주변과 새롭게 관계를 형성할 때 창조되는 가능성의 형식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고는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과 더불어 “인간이 존재하는 바,<sup>10)</sup> 즉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언어 형식은 현존재가 세계에 거주하는 방식과 유비관계를 이룬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주변에 머무르는 존재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따라 언어 형식이 달리 작동한다는 것을 말한다.

『희랍어 시간』의 작중인물은 언어로 거주하는 인간의 두 유형을 보여준다. 여자는 존재를 감지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번역할 체계가 부재한 삶을 표상한다. 반면 남자는 인위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에 존재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공허한 삶을 상징한다. 『희랍어 시간』은 두 작중인물을 통해 언어를 성찰하며 공동의 언어 형식을 발견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나간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언어 기호를 매개로 하는 ‘배움의 과정’<sup>11)</sup> 안에서 구성된다. 언어를 통한 배움의 여정 속에서 『희랍어 시간』의 작중인물들은 자기 및 타자 이해에 도달한다. 이때 언어는 기호에서 존재, 공동체

10) 마르틴 하이데거, 『언어로의 도상에서』, 신상희 역, 나남, 2012, 17면.

11) 『시학』에서 배움의 과정은 기호의 대상지시성으로 회귀하는 배움을 뜻한다. 본고에서 중점을 두는 배움의 과정은 대상지시로 환원되지 않고, 그 대상과는 다른 것을 아는 앎을 생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질 들뢰즈,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동욱·이충민 역, 2004, 49면 참고.)

차원으로 확대되며 윤리적 효과를 실천하는 형식이 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본고는 『희랍어 시간』의 두 작중인물을 통해 제시된 언어의식을 살펴보고, 각 인물이 상징하는 언어 형식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후 두 인물의 만남 속에서 두 형식이 접촉함으로써 구축된 새로운 언어 체계와 그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 2. 파편화된 언어와 의미의 무화

『희랍어 시간』은 말을 잃어가는 여자와 시각을 상실해가는 남자의 이야기이다. 작중인물의 신체가 지닌 독특한 표식에 주목할 때, 그들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의 일부를 상실하여 의사소통 장애를 겪는다는 공통점이 있다.<sup>12)</sup> 그들이 지닌 물리적 한계가 소통불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체적 장애는 그들이 세상에 느끼는 단절과 공포감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 가령 『희랍어 시간』의 ‘여자’가 언어를 잃지 않았을 때, 그녀는 섬뜩한 말들의 공격으로 인해 양분된 삶에 고통스러워하나 그것을 아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녀의 공포는 무심코 뱉어진 말, 통제할 수 없는 말이 지닌 날카로움이야기하는 고통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데에서 비롯한다. ‘남자’의 경우도 유사하다. 여자와 달리 그는 선천적으로 시각을 잃을 운명을 타고난 자이다. 그는 자신과 유사한 처지에 놓인 자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서로의 차이를 온전히 수용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즉 그들이 삶에서 느끼는 소

12) 신체의 장애에 초점을 둘 때 『희랍어 시간』은 장애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소통이나 연대 가능성이 주체의 취약함을 수용하는 자세로부터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선민·송지은, 「문학적 장애재현의 물질성과 생성력」, 『장애의 해석』 1호, 2018, 8-15면.) 그러나 본고는 『희랍어 시간』에서 제한된 시각이나 말을 신체적 장애보다는 세계를 인식하는 수단, 즉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통불가능성은 말 또는 눈과 같은 매개 수단의 소실로 단순히 치환할 수 없다. 의사소통의 불가능성은 그들이 느끼는 절대적인 고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 고독을 야기하는 언어의 불가능성은 『희랍어 시간』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언어 의식이다. 그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작중인물들이 지닌 언어 의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언어에 관한 한 그 말은 사실이었는데도 몰랐다. 그녀는 네 살에 스스로 한글을 깨쳤다. 아직 자모음에 대한 인식 없이 모든 글자들을 통문자로 외운 것이었다. 학교에 들어간 오빠가 담임선생을 흉내내어 한글의 구조를 설명해 준 것은 그녀가 여섯 살이 되던 해였다. 설명을 들은 순간엔 그저 막연한 느낌뿐이었는데, 그 이른 봄의 오후 내내 그녀는 자음과 모음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마당에 쪼그려앉아 있었다. 그러다 ‘나’를 발음할 때의 ㄴ과 ‘니’를 발음할 때의 ㄴ이 미묘하게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을 발견했고, 뒤이어 ‘샤’와 ‘시’의 ㅅ 역시 서로 다른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중략)… 그 소소한 발견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생생한 흥분과 충격을 주었던지. 이십여 년 뒤 최초로 강렬한 기억을 묻는 심리치료사의 질문에 그녀가 떠올린 것은 바로 그 마당에 내리쬐던 햇빛이었다. 별을 받아 따뜻해진 등과 목덜미, 작대기로 흠바닥에 적어간 문자들. 거기 아슬아슬하게 결합돼 있던 음운들의 경이로운 약속. (13면.)

(2) 방금 내가 쓴 글씨지만, 십 센티미터 이상 눈에서 떨어지면 보이지 않아요.

얇기한 대로 소리내어 읽을 때 공포를 느껴요.

태연하게 내 혀와 이와 목구멍으로 발음된 모든 음운들에 공포를 느껴요.

내 목소리가 퍼져나가는 공간의 침묵에 공포를 느껴요.

한번 퍼져나가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단어들, 나보다 많은 걸 알고 있는 단어들에 공포를 느껴요.



지금 들려오는 말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지독한 피로 속에서, 지극하게 어둡고 고요한 이 방에서,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그녀는 느낀다.(167-168면.)

(1)은 여자가 심리치료과정 중에 언급한 최초의 기억이다. 이는 소설에서 두 번이나 언급된다는 점에서 『희랍어 시간』의 언어의식을 해독할 중요한 단서가 된다. 네 살 때 그녀는 오빠에게서 한글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언어에 대한 막연한 느낌을 파헤치고 싶다는 강렬함에 사로잡힌다. 마당 바닥에 여러 음절들을 적어가며 그녀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발음에 미묘한 차이가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것은 그녀에게 첫 기억으로 자리할 만큼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된다. 최초의 사건을 강력히 지배하는 요소는 우연성이다. 음소들은 발음의 미묘한 차이를 발생시키려는 의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결합하지 않는다. 음절 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규칙이 존재하나 그것이 음소의 배치 방식을 강제로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조의 공백 아래 잠재된 여러 음소 중 일부가 현재화되며 음절을 구성할 때 그것은 소리의 차이를 만든다. 이러한 차이를 시간에 따라 개체화하는 의미의 생산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최소의 규칙을 갖추면서도 말의 유희를 가능케 하는 ‘이슬이슬한 결합’은 언어 단위가 커질 때에도 일관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하다.

언어는 규약으로 성사된 의미 이상을 그 내부에 간직하기 때문에 발화자의 의도와 달리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미를 무화하면서 언어는 주체의 위치를 위협하는 강력한 존재가 된다. (2)에서 그것은 발화 주체보다 “많은 걸 알고 있는 단어들”과 “돌이킬 수 없는 단어들”로 표현된다. 이는 주체가 ‘암기한 대로’ 말을 재생할 때에도 발화자의 의도를 빗겨가며 바깥을 향하고 있음을 뜻한다. 말은 무한히 확장되는 바깥을 가리키기 때문에 언제나 스스로를 벗어난 떠도는 말이 된다.<sup>13)</sup> 언어가 중심을 무화할 때, 주체는 자기 내부에서 바깥으로 표현된 것임에도 그 말들을 통제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진다. 즉 언어로부터 자기 상실을 체험하는 주체는 언어 내부에 자신이 굳건히 정착하지 못하고 의미의 주변부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고독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말은 주체의 의도를 파괴하고 그것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무력해진 주체를 문장의 주어에 위치할 여지조차 소진시키기 때문이다.

(2)에서 이탤릭체로 서술된 문단에는 인용부호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십 센티미터 이상 눈에서 떨어지면 보이지 않아요”라는 표현은 그것을 남자의 말로 유추하도록 한다. 그의 고백은 여자가 내내 되새기던 말에 대한 공포와 별반 차이가 없다. 심지어 발화된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그녀의 생각까지 겹쳐지면서 이탤릭체로 된 말은 말의 주인을 명료히 상징할 수 없는 ‘중성적인 것’<sup>14)</sup>이 된다. 중성적인 말은 그것을 발화하는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을 지닌다. 그리하여 (2)의 고백은 남자의 신체로부터 유출된 말임에도 그와의 관계가 소실된, 모두의 말이 된다. 언어가 중성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의미의 중심이 해체되고 전복되기를 반복하는 언어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아슬아슬한 결합에 의해 말은 자신의 내부에 그것이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보존하며 언어의 공간을 무한히 확장시킨다.

두 인용문에는 언어의 규약에서 이탈하는 의미의 부정성(不定性)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의미의 운동성이 강조될 때 언어사용자는 의미가 원자의 상태로 부유하며 공동의 의미지대를 발견할 수 없다는 공포를 체험한다. 이것이 『희랍어 시간』 1장에서 말한 세계나 언어, 인간 사이에 놓인 ‘칼’의 상태이다. 두 대상 사이에 근접할 수 없는 거리를 만들어내는 ‘칼’이 강조될 때, 개별자들은 세계에 오롯이 혼자 존재한다는 고독감에

13) 모리스 블랑쇼, 『문학의 공간』, 58면.

14) 중성적인 것이 지배하는 서술에서 서술의 목소리는 주체의 권위를 잃어버린다. 바깥이면서 동시에 안이기도 한 이 목소리는 차이이다. 중심을 가지지 않는 말이 중성적인 것이 말하게 남겨둔다. (모리스 블랑쇼, 『카프카에서 카프카로』, 이달승 역, 그린비, 2015, 201-209면 참고.)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모든 개별자가 원자적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의미는 발생하지 않는다. 의미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분리된 대상들이 접촉한 이후에 가능성의 형식 혹은 명제로 일반화되는 과정으로 이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각 대상은 파편화된 상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일치의 상태를 부정적이거나 비극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새로운 의미구성체계 속에서 차이를 용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의미의 재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부분 대상들을 하나의 면으로 종합하고 체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 『희랍어 시간』에서 파열된 대상을 한 곳에 모으려는 시도들은 시원적 언어에 대한 상상과 그러한 압축적 언어를 작동시키는 형식에 관한 관심으로 나타난다.

### 3. 시원적 언어에의 동경과 실패한 형식

파편화된 언어는 주체가 공통된 의미를 안정적으로 소통할 기반을 취약하게 만든다. 언어의 무한한 공간 내에서 주체는 언제나 언어의 심층에 집어 삼켜질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자아상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체는 자신이 정박할 수 있는 의미의 지대를 확보해 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균열된 언어를 종합할 형식을 마련해야 하는데 『희랍어 시간』에서 그것은 두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부분들로 파열되지 않은 언어를 발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의 분열된 상태는 용인하되 그것의 의미 있는 전체로 만들 형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후자와 같은 형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주체는 언어의 분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거나 또는 그러한 분열 상태 이전의 언어를 상상할 수 있다. 『희랍어 시간』에서 여자와 남자는 파편화된 현재의 언어 안에서는 서로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공동체가 불가능하리라 여긴다. 말이나 시각을

없다는 특수한 개인사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보편성을 갖추지 못하고, 심지어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들끼리도 결코 동질화할 수 없는 고유 의 아픔과 고통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각하는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속성과 유사한 낯선 언어의 세계를 탐닉한다.

두 작중인물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언어는 바로 희랍어이다. 이들에게 희랍어는 두렵고 낯선 세계에 적응하며 최소한의 삶의 기반을 확보할 수단에 가깝다. 가령, 남자에게 희랍어는 독일 생활에서 안정감을 되찾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여자에게 희랍어는 언어의 소멸을 중지하고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방편에 속한다. 즉 이들은 더는 사용되지 않아 분화하지 않는 희랍어의 완결된 체계 안에서 삶의 가능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여기서 두 작중인물들이 희랍어를 통해 삶을 회복하려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희랍어는 외부나 내부의 균열이 없고 원형적인 고향들로 가득하던 시대에 사용된 언어이다. 그러한 세계에 통용되던 희랍어 역시 총체성을 간직한 시원적인 언어로 존재한다. 시원적인 언어 내부에는 무한한 바깥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것은 공포나 피로와 같은 부정적 상황으로 변질되지 않는다. 차이화하는 의미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언어의 터전이 바로 시원적인 것이다. 희랍어는 수천 년 전에 소멸된 사어(死語)이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 없이 과거의 모습을 보존할 수 있던 언어에 속한다. 이로 인해 희랍어는 그것 내부에 존재하는 언어의 시원을 현재화할 수 있는 언어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희랍어는 가장 태고에 가까운 언어, 즉 시원적 언어를 대표적 상징인 것이다.

χαλεπά τὰ καλά

칼레파 타 칼라.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움은 어려운 것이다.

아름다움은 고결한 것이다.

세 번역이 모두 그르지 않은 것은, 고대 희랍인들에게 아름다움과 어려움과 고결함이 아직 분절되지 않은 관념이었기 때문이다. 모국어에서 ‘빛’이 처음부터 밝음과 색채라는 두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69면.)

두 작중인물은 언어의 시원을 회복하기 위해 희랍어의 세계를 탐닉한다. 희랍어의 시원은 “똑같은 것으로 포착될 수 없”는 ‘생생한 고유화’<sup>15)</sup>로 도래한다. 이는 동일한 말일지라도 의미가 그것이 관계하는 상황에 따라 의미를 현재화함을 말한다.<sup>16)</sup> 위 인용문에서 ‘칼레과 타 칼라’라는 문장은 세 가지로 번역된다. 세 가지 해석은 차이가 있지만 희랍어 체계 안에서 모두 참이 된다. 이는 희랍어 내부에 ‘아름다움과 어려움과 고결함’이라는 관념이 분절되지 않은 덩어리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희랍어는 어떠한 해석도 우위에 두지 않고 가능한 의미들을 수평으로 간직한 다양체와 같다. 희랍어에 잠재된 의미의 리즘은 시간에 따라 개별화하는 해석 생성할 뿐이다. 시원적 언어 ‘희랍어’가 의미의 차이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의미의 유동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때의 유동성은 2장에서 주체를 위협하던 공포와는 달리 의미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긍정적 효과로 작용한다.

15) 폰 헤르만, 앞의 책, 97-100면.

16) 모든 언어는 한 단어 내부에 차이화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언어의 시적 기능은 희랍어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이는 모국어가 한 단어 내부에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지닌다는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적인 언어가 지닌 창조적 힘을 인간의 본래적인 거주 방식이 지닌 긍정적 가치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차이화하는 의미들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태를 논증해야 한다. 그렇게 존재의 평온한 휴식이 가능한 시적인 것은 하이데거가 말한 시원 안에서 솟아오른다. 『희랍어 시간』에서 희랍어는 모국어와 달리 존재가 휴식을 취하는 시원적인 언어로 표현된다. 이는 소통이 불가능한 언어로 나타나는 모국어와의 차이를 부각하기 위함이지 그것이 희랍어에 특권화된 현상임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희랍어는 한 단어 내부에 서로 다른 의미들이 공존하고, 그것을 현실화한 차이들을 모두 긍정한다는 점에서 시원적이자 시적인 언어로 표상된다. 여자와 남자는 희랍어와 같이 개별자들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두되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언어 형식을 동경하며 그것을 찾기 위해 방랑한다. 그러나 희랍어가 구축한 자족적이며 순환적인 의미 체계는 그것이 통용되던 시대에는 유효했지만 지금-여기에 살아가는 여자와 남자의 현실에 변화를 일으킬 형식으로는 기능하지 않는다. 이는 희랍어가 구성한 이상적 형식이 그들의 경험적 삶과 괴리된 대상이라는 근원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희랍어는 그들이 동경하는 시원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던 공간이지만 그들의 삶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 진정한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참된 삶을 구현해 낼 언어 형식에서 시원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시원은 그들의 삶 중심에 자리하는 모국어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그러나 『희랍어 시간』의 ‘남자’와 ‘여자’는 그들의 삶에서 진정으로 도래해야 할 언어의 시원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들이 모국어의 시원을 발견하지 못하는 까닭은 매우 상이한데 이로부터 그들의 삶을 양극단에 위치한, 실패한 두 형식으로 규정할 근거가 마련된다.

그녀는 무심코 팔꿈치로 누르고 있던 육각 연필을 빼낸다. 얼얼한 팔꿈치를 한번 문지른 뒤 흑판에 적힌 두 단어를 공책에 옮겨적는다. 먼저 희랍 알파벳으로 단어를 쓰고, 결국 그 옆에 모국어로 뜻을 써넣지 못한다....(중략)...그녀는 여전히 희랍어 강사의 해쓱한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다. 흑판에 씌어진 모국어 단어들이 그녀의 오른 주먹 안쪽에, 땀으로 축축해진 육각 연필의 매끈한 표면에 소리없이 으개져져 있다. 그녀는 그 단어들을 알지만, 동시에 알지 못한다. 구역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그 단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것들을 쓸 수 있지만, 쓸 수 없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다. 조심스럽게 숨을 내쉰다.(85-87면.)

위 인용문에서 여자는 강의 시간에 희랍어는 쉽게 필사하는 반면 모국어는 하나도 옮겨 적지 못한다. 이러한 장면은 그녀가 모국어로는 시를 창작하지 못하면서 희랍어로 해내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자가 모국어와 달리 희랍어의 체계 내에서는 말과 관계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여전히 모국어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여자의 모습은 희랍어가 언어회복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여자의 삶에는 존재의 목소리가 우글거리지만 그것은 여자에게 소란스러운 잡음에 불과하다. 이는 여자가 존재의 기적을 유의미한 말로 번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존재의 음성을 제대로 인식할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여자는 단어들과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것을 '으깨어'지고 파편화된 조각으로 느낀다.

루카치는 이렇게 아무 것도 파악하지 않은 채 흡수하는 삶이 '진정한 시인'에게 나타나는 '시인의 형식'<sup>17)</sup>이라고 말한다. 흩어진 사물들을 우연히 수동적으로만 접촉하는 시인의 형식은 의미작용이 발생하는 운동 상태를 드러낼 수 있지만 그것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사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의 재현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심지어 형체가 일그러진 말들은 여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대신에 '조각난 면도날'(165면)로 변질되어 그녀의 삶을 공격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말의 난폭함은 언어 내부에서 새어나오는 존재의 소리가 평화롭게 공존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부정적 현상이다. 이것이 여자가 모국어로 '구역질'을 느끼며 모국어와의 관계 회복을 주저하는 이유이다. 즉 시인의 형식을 지닌 여자는 존재의 기적을 느끼지만 그것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실패하고 만다. 그로 인해 모국어는 존재가 거주할 수 있는 풍요로운 집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후회, 집착과 슬픔과 나약함 들을 참과 거짓의 성근 그물코 사이로 빠져나가게 한 뒤 사금 한줌 같은 명제를 건져올리는

17) 게오르그 루카치, 『영혼과 형식』, 홍성광 역, 연암서가, 2021, 81-83면 참고.

논증의 과정에는 늘 위태하고 석연찮은 데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담하게 오류들을 내던지며 한 발 한 발 좁다란 평균대 위를 나아가는 동안, 스스로 묻고 답한 명철한 문장들의 그물 사이로 시퍼런 물 같은 침묵이 일렁이는 것을 봅니다. …(중략)…어리석음이 그 시절을 파괴하며 자신 역시 파괴되었으므로, 이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함께 살게 되었다면, 내 눈이 멀게 된 뒤 당신의 목소리는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이는 세계가 서서히 썰물처럼 밀려가 사라지는 동안, 우리의 침묵 역시 서서히 온전해졌을 겁니다. (44-48면.)

남자는 존재의 소리를 듣고 해석할 논리적 형식을 갖췄으나 존재의 부재로 그 형식을 활성화하지 못한다. 이는 그가 “감각의 실재를 배어 내”(120면)며 모순적인 것도 포용하는 철학자의 형식을 동경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철학자의 형식은 형식의 광범위함을 지탱하기 위해 어떤 균열도 거부하며 통일성을 강요한다.<sup>18)</sup> 그것은 ‘명제’나 ‘논증’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통과 후회,’ ‘집착과 슬픔과 나약함’과 같은 인간적 자질들을 거세한다. 인위적으로 합리적인 형식을 구성하는 과정에는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배제하는 파괴적인 논리가 작용하게 된다. 이는 남자가 철학의 논증과정에서 발견한 ‘늘 위태하고 석연찮은’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형식의 난폭함은 남자가 연인에게 ‘목소리’를 요구한 사건과 요아힘 그룬델과의 일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남자에게 연인의 목소리는 미래에 당면할 불완전한 소통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합리성의 차원에서 침묵 안에서 온전한 소통을 이룩할 수 있다는 연인 사이의 사랑과 신뢰는 매우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자질로 간주된다. 남자는 그러한 정신적 가치에 기대는 대신 비합리성을 제거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낸다. 그렇지만 그것은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처사이자 강요에 불과했다. 이와 유사하게 남자는 친구

18) 게오르그 루카치, 앞의 책, 83면.



‘요아힘 그룬델’이 사랑에 기초한 접촉, 즉 진정한 의사소통을 시도할 때 그의 욕망을 철저히 외면해 버린다. 이는 “상처입기 쉬운 곳으로 가득한 인간의 몸”(123면)을 자신의 삶에서 분리하고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두 사건 모두에서 남자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제거하기 위한 선택을 단행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남자의 선택은 자기와 타자 모두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이처럼 보편적인 철학자의 형식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배제하기 때문에 삶을 증류하는 데에 실패한다. 그리고 남자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실제 없는 형식의 공허함과 그것을 동경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다.

여자의 삶에는 끝없이 언어의 존재가 침투하지만 그것을 유의미하게 해독할 체계가 부재한다. 그 결과 여자의 삶 도처에 존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그것이 삶에 유의미한 것으로 정박하지는 못한다. 이와 달리 남자의 형식은 논리적이고 완결된 체계를 갖췄지만 개체화하는 차이를 용인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남자의 삶은 존재가 당도하지 않는 황폐한 형식이 된다. 두 형식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를 보완할 상보적 관계에 위치한다. 그렇게 두 형식이 대리보충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스스로 자신들의 형식을 변형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 발생해야 한다. 『희랍어 시간』에서 그것은 우연한 계기를 통해 두 남녀가 접촉하는 사건으로 나타난다. 가능성의 형식은 두 형식이 우발적으로 충돌할 때 창조되는데 이때 시원적 언어를 향한 동경은 불확실함을 벗어나 형상화될 수 있는 의식이 된다.<sup>19)</sup> 이 단계에 도달했을 때 언어는 존재의 흩어진 목소리를 제대로 해독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평화로운 터전이 될 수 있다.

19) 게오르그 루카치,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심설당, 1998, 32면.

#### 4. 형식의 충돌과 언어의 회복

남자와 여자는 그들의 경험과 결합할 수 있는 형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닌 불협화음을 해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와 화합할 수 없는 고독 속에 머물고, 인륜적 정신이 정박할 수 있는 말을 회복하지 못한다. 언어가 지닌 공동체의 기반을 되찾기 위해서는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의 형식이 결합되는 사건이 발생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희랍어 강의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기척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희랍어를 배우는 시간이 둘을 한 장소에 모으고 서로를 인식할 조건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둘의 유의미한 접촉을 생성하는 사건이 되지는 않는다. 사건은 매우 순간적이고 우발적이지만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독특한 위상을 지닌다.<sup>20)</sup> 그러나 희랍어 강의는 그러한 삶의 변곡점을 생성할 만한 중대한 사건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두 작중인물은 강의 시간에 서로가 방출하는 낯선 기호를 마주하지만 그것의 의미를 깊게 사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랍어 시간에는 두 형식이 접촉하거나 충돌할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형식이 접촉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만남이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생성할 사건으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여자와 남자가 우연히 접촉하며 언어를 회복하는 사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연약함을 사려 깊게 대할 때 솟아오른다. 내약함은 굳게 닫혀 있던 주체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바깥으로 자신의 내부를 내보일 때 나타난다. 내부의 열림이 있을 때, 바깥에 있던 존재는 굳게 닫혔던 형식 안에 증류된 삶을 세심히 들여다볼 수 있다. 『희랍어 시간』에서 이러한 사건은 어둠 속에 갇혀 도움을 요구하는 남자와 그것을 알아듣고 응답한 여자의 만남에서 솟아오른다. 남자의 목소리

20) 이정우, 『사건의 철학』, 2016, 그린비, 17면.

에 묻어난 연약함은 모든 형상을 차단하고 그것에 무관심하던 여자에게 새롭고 독특한 기호가 된다. 남자가 그렇게 새로운 기호로 다가올 때, 여자는 그에게 다가가며 그의 말에 응답한다. 이때 해독되지 않고 귀 표면에서 흘러졌던 타인의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한다.

더 이상 허공을 더듬지 않는 눈, 오래 혼자서 말한 사람의 눈, 단 한 번도 대답을 듣지 못한 사람의 눈을 그녀는 본다.

지금, 택시를 부르겠어요?

그녀는 혀끝으로 아랫입술을 축인다. 입술을 떼었다가 힘껏 다문다. 그가 내민 손을 그녀의 왼손으로 받친다. 주저하는 오른손의 검지손가락으로 그의 손바닥 위에 쓴다.

아니요.

가늘게 떨리는 획과 점 들이 두 사람의 살갓을 동시에 그었다가 사라진다. 소리가 없고 보이지 않는다. 입술도 눈도 없다. 떨림도, 따뜻함도 곧 사라진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170면.)

『희랍어 시간』에서 형식의 충돌은 소리나 신체를 통해 두 작중인물이 접촉하는 사건으로 표현된다. 위 인용문에는 두 작중인물은 말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일시적으로 접촉하며 의미를 소통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여자의 변화이다. 여자는 모국어에 잔존하는 날카로운 파편들이 자신의 내부에 상처를 내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모국어로 말을 하지도 그것을 쓰는 것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남자의 내면에 은닉되었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그녀는 흘러져 있던 말들을 모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한다. 이는 여자가 남자의 손바닥에 말을 쓰는 장면으로 나타난다. 일시적으로 기입된 타인의 흔적은 한 개인이 은닉하던 취약하고도 연약한 삶의 지층을 파고든다. 그러나 이는 삶을 파괴하는 폭력이 아니며

이전보다 더 큰 안정성, 즉 새로운 가능성의 형식으로 이행하는 긍정적인 충동에 속한다. 순간적이지만 서로의 삶이 닿는 순간은 단절되고 떨어져 있던 두 대상을 연결한다.

여자가 언어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남자가 여자의 말없음을 비난하지도 않고 강제로 말을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옆에 있는지 확인하는 말들을 건네지만 그녀가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남자 역시 그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라면 그녀에게 응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단 한 번도 대담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서로 융합하지도 않고 ‘분유’의 상태로 “소통의 자리”를 지키는 행위에 가깝다.<sup>21)</sup> 상대의 침묵에 조급해하지 않고 덤덤히 소통하며 남자는 폭력적이던 이성의 형식을 허물어 나간다. 그렇게 강요 없이 서로의 방식을 간직한 두 작중인물이 접속할 때, 비로소 가능성의 형식이 창조된다.

『희랍어 시간』에서 말의 회복은 형식들의 충동을 통해 ‘가능성의 형식’이 창조될 때 시작된다. 가능성의 형식은 ‘비물질적 객관성’에 해당하는 의미의 범주들을 생산하는 형식<sup>22)</sup>이다. 이는 가능성의 형식이 공통감을 확보한 관념을 현실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관념의 공통감이란 자유, 사랑, 배려, 이해 등과 같은 윤리적 가치에 기초한 정신을 뜻한다. 『희랍어 시간』에서 가능성의 형식은 자유와 사랑에 기초한 타자 윤리를 생산한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사려 깊게 대하여 상대에게 자신의 소통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무위의 상태는 서로의 상황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찰한 다음, 서로의 차이를 용인하는 자유에서 비롯된다. 또한 그들은 어떠한 강제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부를 개방하고 변형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타자를 수용한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와 타자 모두를 배려하는 실존의 미학을 실천하게 된다. 『희랍어 시간』에서 윤리적 가치

21) 장-뤽 낭시, 『무위의 공동체』, 박준상 역, 인간사랑, 2017, 67면.

22)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222면.

를 현재화하는 가능성의 형식은 의미는 분유하면서도 단수성을 지키는 ‘연인의 공동체’<sup>23)</sup>로 표현된다.

심장과 심장을 맞댄 채, 여전히 그는 그녀를 모른다. 오래전 아이였을 때, 마당을 내다보았던 것을 모른다. 바늘처럼 맨몸을 찌르던 말들의 갑옷을 모른다. 그녀의 눈에 그의 눈이 비쳐 있고, 그 비친 눈에 그녀의 눈이, 그 눈에 다시 그의 눈이……그렇게 끝없이 비치고 있는 것을 모른다. 그것이 두려워, 이미 핏발이 맺힌 그녀의 입술이 굳게 악물려 있는 것을 모른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장 부드러운 곳을 찾기 위해 그는 눈을 감고 뺨으로 더듬는다. 선득한 입술에 그의 뺨이 닿는다. …(중략)…

내 몸에서 완전히 떨어져나가기 전에,

당신은 나에게 천천히 입맞추었지요.

이마에.

눈썹에.

두 눈꺼풀에.

…(중략)…

*끈질기게,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린다.*

*마침내 첫 음절을 발음하는 순간, 힘주어 눈을 감았다 뜬다.*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사라져 있을 것을 각오하듯이. (183-191면.)*

위 인용문에는 연인의 공동체가 생성되는 과정이 잘 드러난다. 손바닥에 글을 쓸 때만 접촉하고 거리를 두던 남자와 여자는 ‘심장과 심장을 맞대고 서로의 눈에 서로의 형상이 맺힐 정도로 가까워진다. 또한 남자가 뺨으로 여자의 얼굴을 더듬거나 입을 맞출 만큼 내밀해진다. 연인과의

23) 연인의 공동체는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단수성을 이루지만 연인을 이룬 두 사람을 하나로 융합하지는 않는다. 두 사람이 지닌 각각의 고유성의 합이 연인이라는 공동체의 본질을 구현하지 않는다. 서로가 지닌 타자성을 용인하며 단수성을 이루는 연인의 형상은 사회에 정착해야 할 공동체에 가깝지만, 그것은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공동체이기에 무위의 상태를 유지한다. (위의 책, 90-91면 참고.)

은 형상을 취하지만 두 작중인물은 각자의 과거를 더 파헤치지도 않는다. 그들은 서로의 역사를 그대로 둔 채 서로를 응시하며 아픔을 보듬을 뿐이다. 서로를 향한 인륜적 정신이 진실하게 작용할 때, 두 사람은 서로의 굳건한 경계를 허물고 자신을 개방한다. 남자는 과거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여자에게 목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자는 자신의 침묵을 비이성적인 광기로 규정하며 비난하는 공간에 있지 않다. 차이를 용인하는 자유의 공간에 머물기 때문에 조각난 말들은 여자를 공격하지 않는다. 두 사람이 구축한 공동의 형상은 바깥에 위치한 자들의 본질을 구현하지도 않고 그러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도 않는다. 그들은 서로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는 공동체를 생성할 뿐이다. 그것은 공동체의 이상을 향한 어떤 의도도 지니지 않아 완성될 수 없는 미완의 공동체이다. 이는 언제나 무화될 수 있는 연약함을 지니지만 그 토대에 인륜적 정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미완의 상태를 지속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형상은 자신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그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풍만하게 담아낸다.

이처럼 두 형식이 충돌하며 서로를 향해 개방할 때, 소통이 불가능하던 언어는 가능성의 형식으로 전환된다. 『희랍어 시간』에서 새롭게 언어의 형식을 구축한 여자는 자신의 목소리로 모국어론을 말하기 위해 시도한다. 그녀의 신체는 말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 있다. 그렇지만 여자는 그녀에게 당도한 마지막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최후의 에너지를 입술로 보낸다. 그렇게 사라질 것을 각오하며 모든 에너지를 응축하고 폭발했을 때, 그녀는 첫음절을 발음하게 된다. 이처럼 불가능해보이기만 했던 말의 회복은 인륜적 정신에 기초한 공동체의 형상 안에서 도래한다. 그러나 가능성의 형식은 남자나 여자의 삶을 속박할 제도나 규범과 같이 기능하지는 않는다. 가능성의 형식을 표상하는 연인의 공동체는 그것이 필연적으로 도달해야 할 이상을 공백으로 두기 때문에 그것이 지닌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희랍어 시간』의 언어는 윤리적 가치에

토대를 두고 타자와 진정한 관계를 형성한 삶이 구축되었을 때 회복된다. 이때 언어는 기호 차원을 초월하여 우리 삶 속에 의미를 붙들어 놓는 소통의 형식이자 공동체의 윤리로 확대된다.

## 5. 결론

지금까지 『희랍어 시간』에 나타난 소통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의 형식에 관해 살펴보았다. 『희랍어 시간』은 인간의 근원적인 삶의 방식과 그것이 함의해야 할 공동체 윤리를 형상화하기 위해 언어를 천착한다. 기표와 기의의 불일치로 인해 언어는 완전한 소통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닌다. 기호의 불완전성에 의해 인간은 공동의 의미를 확보할 수 없다는 불안과 고통에 사로잡힌다. 『희랍어 시간』의 작중인물은 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을 간직하기 때문에 언어와 소통에 관해 예민하다. 소통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소통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낯선 언어, 즉 희랍어에 몰두한다. 희랍어는 의미가 세분화되기 이전의 모습, 즉 언어의 시원을 간직하는 언어이다. 이로 인해 희랍어는 동시적으로 차이화하는 의미를 표현하는데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독특함을 지닌다.

두 작중인물은 희랍어와 같이 차이를 용인하면서도 소통이 원활한 언어의 형식을 동경한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삶에 내재화한 형식은 언어의 시원을 활성화할 대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여자는 언어에 잠재된 의미가 동시다발적으로 현재화되어 의미해독이 어려운 시인의 형식을 갖췄고, 남자는 보편적인 이성을 위해 존재의 특이성을 제거하는 철학자의 형식에 기대기 때문이다. 이 두 형식은 존재의 귀환과 해석에 관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상보적 관계를 형성한다. 두 형식이 서로 충돌하여 유의미한 형식을 창조할 사건이 발생할 때, 남자와 여자의 삶에 언어의 시원이 도래할 수 있다.

『희랍어 시간』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연약함을 응시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소통할 때, 언어를 회복한다. 이때 두 작중인물의 모습은 분유 하면서도 단수성을 형성하는 연인의 공동체에 가깝다. 연인의 공동체는 두 형식이 충돌하며 생산한 가능성의 형식이다. 가능성의 형식이 활성화될 때, 자유와 사랑에 기초한 인류적 정신이 효과화되며 언어가 회복된다. 『희랍어 시간』에서 언어는 기호를 넘어 공동체와 윤리의 영역과 결합할 때 회복된다. 즉 진정한 언어의 시원은 사랑과 자유, 자기 및 타자 배려와 같은 윤리적 가치가 생동하는 장소에서 솟아난다. 이것이 『희랍어 시간』이 언어의 불완전함과 회복을 통해 가닿고자 한 윤리의 영역이자 『희랍어 시간』이 가시화하고자 한 도래해야 할 공동체의 이상이다.



## | 참고문헌 |

## 1. 기본 자료

한강, 『희랍어 시간』 문학동네, 2018.

## 2. 논문 및 평론

- 강계숙·한강, 「작가 인터뷰-삶의 숨과 죽음의 숨 사이에서」, 『문학과사회』 2010. 봄호, 333-348면.
- 강소희, 「오월을 호명하는 문학의 윤리」, 『현대문학이론연구』 62, 201, 5-31면.
- 강지희, 「작가 인터뷰-고통으로 '빛의 지문'을 찍는 작가」, 『작가세계』 2011 봄호, 43-58면.
- 김재경, 「소설에 나타난 음식과 권력의 문화기호학-김이태 「식성」과 한강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2, 2009, 251-281면.
- 박진, 「한강 소설에 나타난 주체화의 양상과 타자 윤리 문제」, 『한국언어문화』 59집, 2016, 287-309면.
- 박진, 「표상 불가능한 타자의 현전과 비표상적 글쓰기의 가능성」, 『현대소설연구』 71, 2018, 123-150면.
- 신수정,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채식'의 의미」, 『문학과환경』, 9권 2호, 2010, 193-211면.
- 심영의, 「5·18 소설에서 항쟁 주체의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15권 1호, 전남대 5·18연구소, 2015, 39-67면.
- 우찬제, 「진실의 숨결과 서사의 파동」, 『문학과사회』 23, 2010 봄호, 349-363면.
- 이선민·송지은, 「문학적 장애재현의 물질성과 생성력」, 『장애의 해석』 1호, 2018, 2-45면.
- 이숙, 「예술가의 사회적 책무:폭력의 기억과 기억의 본질」, 『현대문학이론연구』 60, 201, 439-462면.
- 이찬규·이은지, 「한강의 작품 속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연구-「채식주의자」를 바탕으로」, 『인문과학』 46,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43-67면.
- 장수익, 「감각과 분열증—한강 소설 연구1」, 『한국현대문학연구』 58, 2019, 393-431면.
- 조연정, 「광주를 현재화하는 일」, 『대중서사연구』 20권 3호, 2014, 101-138면.
- 함정임, 「2000년대 한국 소설의 생태학적 고찰」, 『한국문예창작』 9권 1호, 2010, 213-234면.

### 3. 단행본

- 이정우, 『사건의 철학』, 그린비, 2016.
- F-W. 폰 헤르만, 『하이데거의 예술철학』, 이기상·강태성 역, 문예출판사, 1997.
- 게오르그 루카치,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심설당, 1998.
- 게오르그 루카치, 『영혼과 형식』, 홍성광 역, 연암서가, 2021.
- 장-뤽 낭시, 『무위의 공동체』, 박준상 역, 인간사랑, 2017.
- 질 들뢰즈, 『포루스트와 기호들』, 서동욱·이충민 역, 2004.
-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옮김, 한길사, 2017.
- 질 들뢰즈,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 이찬웅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9.
- 모리스 블랑쇼, 『문학의 공간』, 이달승 역, 그린비, 2016.
- 모리스 블랑쇼, 『카프카에서 카프카로』, 이달승 역, 그린비, 2015.
- 마르틴 하이데거, 『언어로의 도상에서』, 신상희 역, 나남, 2012.
- 폴 드 만, 『독서의 알레고리』, 이창남 역, 문학과지성사, 2010.

<Abstract>

The impossibility of communication  
and The form of possibility  
– focused on “The Greek Lecture”

Lee, Ha-eun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impossibility of communication and the form of possibility through “The Greek Lecture” in Gang-Han's novels. Whil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eco-feminist perspective in “Vegetarian” and the historical context in “Human Acts”, this paper has a purpose to uncover the poetics of Han's novels by examining “The Greek Lecture.” This particular work stands out for its exploration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By examining the form of language in “The Greek Lecture,” we can gain an insight into the broader poetics of Han's novels.

According to Heidegger, language is the house of being, and human lives in the way of language. Similarly, the language in “The Greek Lecture” symbolizes the way of life for the two main characters. Their communication disorders are related to incomplete language forms. While the woman can hear the voice of being, she lacks an appropriate form to interpret it, whereas the man has a logical construction for communication but cannot contain the meaning of being. “The Greek Lecture” explores how to restore the broken system of meaning, and the main characters turn to the Greek language to achieve this goal.

However, the exotic language alone cannot provide a solution. To regain the right system of meaning, the two incomplete forms must

collide. This happens incidentally when the main characters face each other's weaknesses, leading to the formation of a community of lovers. The community of lovers is a form of possibility that is constructed by embracing their incompleteness and differences. As a result, ethical values such as solidarity, love, liberty, and trust are generated in their lives. The matter of language form and communication in “The Greek Lecture” shifts from semiotics to ethics, suggesting that ethical values are the key to overcoming the impossibility of communication.

In conclusion, an impossibility of communication gets over, when ethical values settle down in human being's lives. This is the practice of ethics that “The Greek Lecture” shows through the matter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Key words: “The Greek Lecture”, uncertainty of linguistic sign, the form of possibility, primitive(origin) language, form, Gang-Han, ethics, community of lover

투 고 일 : 2023년 2월 20일

심 사 일 : 2023년 3월 8일

게재확정일 : 2023년 3월 8일

수정마감일 : 2023년 3월 22일